

협동조합운동에 대한 기독교윤리적 이해*

조용훈 (한남대학교)

I. 들어가는 말

II. 협동조합의 발전과 유형

1. 협동조합 개념과 발전사
2. 협동조합의 유형

III. 우리나라 기독교 협동조합의 역사

1. 일제 강점기 기독교 협동조합운동
2. 해방 후 기독교 협동조합운동
3. 1960년대 이후 기독교 협동조합운동

IV. 협동조합운동과 기독교적 가치 사이의 상관성

1. 협동조합의 원칙에 나타난 핵심 가치들
2. 협동조합운동의 목표: 생명과 사람 중심의 공동체
3. 협동조합운동의 조직 원리: 협동과 연대
4. 협동조합의 운영 원리: 평등과 자율에 기초한 민주주의

V. 나가는 말: 협동조합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실천과제

* 이 논문은 2015년도 한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ABSTRACT •

A Study on the Movement of Cooperatives from the Perspective of
Christian Ethics

Jo, Yong Hun

Since the enforcement of the cooperatives law in 2012, the issue of cooperatives has been a major social concern in Korea. The cooperative movement is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social movement to the new-liberal capitalistic society. For the Christianity it is the way of practice of Christian beliefs and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the churches. The history of the Korean church shows that the cooperative movement by churches is an effective way of mission and social ministry. It is very difficult to develop and sustain a cooperative successfully. To overcome these difficulties it is needed to understand the concept, categories and history of the cooperative movement. There are several reasons for churches to be interested in and participate actively in the cooperative movement. Especially, there are three shared values and Christian beliefs in the cooperative movement as follows. Firstly, the goal of the cooperative movement and Churches is the formation of a community which regard life and human beings as the most valuable thing. Secondly, the community is organized on the spirit of cooperation and solidarity. Lastly, the community is operated by a democratic decision. Even though the realities of the cooperative movement are insufficient, when comparing to Jerusalem community in the New Testament, the cooperative movement is a meaningful attempt to realize the Christian value in the world.

Key words: Cooperative Association, Church, Value, Community, Solidarity, Democracy

I. 들어가는 말

유엔은 2012년에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선포했으며, 최근 우리사회에서도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2012년 12월 시행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5인 이상이면 누구나 금융업과 보험업을 제외한 사업을 내용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2012년 12월 이후 2년6개월 동안 설립된 협동조합 숫자가 7,226개에 달했으며, 2016년에는 1만개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¹⁾

협동조합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폐해들(노동착취, 고용불안, 환경 파괴 등)을 극복하는 새로운 대안사회운동 가운데 하나로 인정되고 있다. 실제로 협동조합은 저성장의 경제상황에서도 고용의 창출과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²⁾ 협동조합운동은 ‘사회적 경제’의 중요 요소 가운데 하나로서 대기업의 과도한 시장 지배력에 맞서는 대안적 경제활동이 될 수 있다.³⁾ 사회적 차원에서 협동조합운동은 개인주의 확산과 세계화에 맞서 지역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이는 협동조합이 지역사회의 필요를 파악하고, 지역민을 조합원으로 하며, 지역민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사회에 잉여를 재투자하며, 지역 내에 형성된 신뢰와 협동의 사회적 자본을 활용하는 사업방식을 취하기 때문이다. 한 예로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지역공동체운동 가운데 하나로 알

1) “결도는 협동조합 절반은 폐업상태”, 「세계일보」(2015년 6월 8일).

2) 2012년 55개였던 협동조합 수가 2013년 3,234개, 2014년에 2,962개가 새로 설립되면서 일자리 3만 6천개가 늘어났다. 참고: “고용창출 일등공신 ‘협동조합’”, 「국민일보」(2015년 6월 6일).

3) 일반적으로 사회적 경제란 나눔, 공유, 협동을 특징으로 하는 경제로서 자본 대신에 사람과 지역사회에 더 많이 관심한다. 협동조합은 사회적 기업과 더불어 대표적인 사회적 경제의 조직이라 할 수 있다.

려진 서울 ‘성미산 마을공동체’는 공동육아협동조합, 두레생협, 마을극장, 대안학교, 동네부엌, 동네카페 같은 협동조합을 토대로 삼고 있다.

한편, 신학적·목회적 차원에서 협동조합운동은 기독교 신앙과 공유하는 가치가 많다는 점에서도 한국교회가 관심할만한 주제임이 틀림없다. 과거 협동조합운동의 역사를 살펴보다도 협동조합은 교회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었다. 협동조합운동의 초창기 유럽의 협동조합들은 기독교 사회주의라는 정신적 토대에서 성장했고, 최근 세계 협동조합운동에 큰 영향을 끼친 스페인의 몬드라곤은 호세 마리아 신부에 의해 설립되었고, 일본의 고베생협은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가 주도해서 설립되었으며,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운동에서도 교회의 역할이 아주 컸다. 협동조합운동은 기독교 신앙을 생활화하고, 사회현실을 개선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며, 사회에서 교회의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방식이다. 이런 배경에서 최근 우리나라 기독교계에도 협동조합운동에 대한 논의가 부쩍 늘어났다.⁴⁾

하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교회들은 협동조합운동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며, 심지어 교회가 경제활동을 한다는 데 대해 거부감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리고 실제 운영과정에서 협동조합은 일반기업들과 비교해서 경쟁력이 약한데다 내부역량까지 부족해서 폐업이 속출하는 현실이다.⁵⁾ 심지어 정부의 재정지원만 노리는 암체 협동조합이 있는가 하

4) 최근 한국교회의 협동조합운동에 대한 논의는 다음을 참고하라. “기획특집: 협동조합 운동과 교회의 과제”, 『농촌과목회』54(2012/여름), 8-100;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세미나, “협동조합과 교회”(2012년 11월); “기획특집: 교회와 협동조합”, 『한국기독교공보』(2013년 4/5월); “특집: 이제는 협동조합이다”, 『기독교사상』(2013/7), 10-92;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사회봉사부 세미나자료집, 『교회와 협동조합』(2013) 등.

5) 협동조합 실패의 원인으로서 사업운영자금의 부족(33.3%), 수익모델 구축의 미비(22.2%), 조합원 미확보(14%), 정부지원정책의 부족(10.5%) 등이 알려져 있다. 참고: “협동조합 10곳 중 4곳 ‘첫발’도 못 떴고 개점휴업”, 『국민일보』(2013년 11월 16일).

면, 실체는 없고 문서상으로만 존재하는 협동조합도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여 이 연구는 먼저 협동조합의 개념과 역사에 대해 살핀 후에 우리나라 역사 속에 등장했던 기독교 협동조합운동을 살펴보겠다. 이를 통해 협동조합운동이 한국교회의 시작 때부터 존재했던 중요한 신앙적 사회운동이었음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에 이 논문의 주요 관심이라 할 수 있는 협동조합운동과 기독교 신앙 사이에 공유하는 가치들을 기독교윤리학적으로 검토하겠다.⁶⁾ 협동조합운동과 기독교 신앙 사이에 공유되는 가치들이 많다고 하는 사실은 앞으로 한국교회가 협동조합운동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이 연구를 통해 한국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효과적인 선교전략 가운데 하나로 협동조합운동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깨닫게 되길 희망한다.

II. 협동조합의 발전과 유형

1. 협동조합 개념과 발전사

국제협동조합연맹(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은 협동조합을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관리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동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된 사람들의 자율적인 조직’이라고 정의한다. 이 정의에 따르면, 협동조합의 주체는

6) 협동조합운동과 기독교 가치의 상관성을 주제로 삼아 연구한 글은 거의 없다. 정재영은 생명가치, 나눔과 섬김,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배려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논하고 있다. 조성돈은 이 주제에 관해 자유와 책임, 코이노니아라는 사회윤리적 가치와 더불어 생명, 정의, 평화, 헌신 같은 신학적 가치들을 말하고 있다. 다만 이 두 글 모두 세미나 발표문과 기고문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에는 못 미치고 있다. 참고: 정재영, “협동조합운동의 기독교적 가치와 선교적 가능성”, 『기독교사상』(2013/7), 42-49; 조성돈, “교회의 생명공동체운동과 협동조합”, 예장총회사회봉사부, 「교단 생활협동조합 창립을 위한 공개세미나 자료집」(2015년 3월 5일), 53-65.

조합원이며, 목적은 공동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고, 조직의 성격은 사람의 결사체이고, 운영방식은 민주적이다. 다만 다른 인적 결사체와는 달리 협동조합은 경제적 활동을 하며, 일반기업과는 달리 조합원이 출자자요 운영자요 이용자가 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우리나라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르면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이다. 여기서 특이점은 조합원의 권익향상과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을 언급함으로써 협동조합의 사업성과 동시에 공익성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협동조합의 출현은 초기 자본주의의 등장과 맞물려 있다. 산업혁명이 시작된 직후 영국사회는 농촌 붕괴, 노동자 착취, 어린이와 여성의 노동, 빈부격차, 실업자 증가 등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했다. 이즈음 스코틀랜드의 뉴 라나크에서 수차방적공장을 운영하던 로버트 오언(1771-1858)은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개선하는 방편으로 노동조건과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유치원을 설립하고, 생필품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일종의 소비조합을 만들어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다. 1827년 오언은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 인디애나주 뉴하모니에서 자신이 꿈꾸었던 유토피아 협동마을의 건설을 시도했다. 비록 뉴하모니에서의 실험이 크게 성공적이지는 못했지만 그가 꿈꾸었던 협동조합에 대한 비전은 이후 협동조합운동에 큰 영향을 주었다.

현대적 의미의 협동조합은 1844년 영국 랭커셔 주의 면직물 공장이 있는 작은 마을 로치데일에서 28명의 직공들이 설립한 ‘공정선구자협동조합’일 것이다. 가난한 노동자들에게 생필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려는 목표로 설립된 공정선구자협동조합은 소비조합의 형태로써 정직한 상거래

와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운영원칙을 확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⁷⁾

이후 협동조합운동은 꾸준히 발전하여 현재 전 세계적으로 단위 협동조합의 숫자는 약 170만개, 조합원 숫자는 약 10억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⁸⁾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이 전 세계 300대 협동조합을 사업별로 조사한 결과 농업 및 가공업이 33%, 도소매가 25%, 보험업이 22%였다.⁹⁾ 전체 인구의 절반이상이 조합원일 정도로 협동조합이 활성화 된 나라는 핀란드, 스웨덴, 아일랜드, 캐나다 등이다. 그리고 국민소득에서 협동조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나라는 핀란드, 뉴질랜드, 스위스, 네덜란드 및 노르웨이 등이다.¹⁰⁾

세계적으로 유명한 협동조합은 스페인 북부 바스크 지방의 몬드라곤이다. 몬드라곤은 스페인 내 일곱 번째로 큰 기업집단으로서 스페인 최대 규모의 은행과 슈퍼마켓 체인을 포함해서 150여개의 협동조합에 8만 3천여 명을 고용하고 있다. 그리고 유니폼 스폰서십을 유니세프와 맺고 있는 축구클럽인 FC바르셀로나는 17만여 명의 조합원으로 만들어진 협동조합이다. 캐나다에서는 국민 세 명 가운데 한 명꼴로 협동조합이 활성화되어 있다. 그 가운데서도 퀘벡 지역은 북미에서 협동조합이 가장 잘 발달된 곳으로서 약 3천 개의 협동조합에 880만 명의 조합원이 소속되어 있다. 퀘벡은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가 주 전체 경제 규모의 8-10%에 이를 정도다.¹¹⁾ 그리고 인도에서는 설탕의 절반가량이 협동조합을 통해 생산되고, 폴란드에서 새로 지어지는 주택의 75% 이상은 협동조합이 건

7) 조지 제이콥 홀리요크, 정광민 역, 『로치데일 공정선구자 협동조합』(홍성균: 그물코, 2013).

8) 김성오 외, 『우리 협동조합 만들자』(고양: 겨울나무, 2013), 19.

9) 스테파노 자마니·베라 자마니, 송성호 역, 『협동조합으로 기업하라』(서울: 북돋움, 2014), 86.

10) 정태인·이수연, 『협동의 경제학』(서울: 레디앙미디어, 2013), 204.

11) 정태인·이수연, 『협동의 경제학』, 221.

축하고 있다고 한다.¹²⁾

협동조합은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고용안정에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다. 한 예로, 몬드라곤에서는 2008년 세계경제 위기 속에서도 단 한명의 노동자도 해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1만 5천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추산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협동조합에 약 1억 명이상이 고용되어 있다.¹³⁾ 한편, 협동조합은 저개발국의 빈곤문제의 해결과 민주주의 발전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예로 멕시코 치아파스 주의 커피 협동조합 ‘카페 저스토’(Cafe Justo)의 수입은 치아파스 주 평균 수입을 훨씬 능가한다. 가나의 코코아 재배농민들로 구성된 협동조합 ‘쿠아파 코쿠’(Kuapa Kokoo)에는 4만 5천여 명의 농민이 조합원이다.¹⁴⁾

우리나라 강원도 원주는 ‘협동조합의 도시’라 불릴 정도로 협동조합이 활성화되어 있다. 전체 협동조합원 숫자가 원주시 전체 인구의 약 11%인 3만 5천여 명에 이르고, 협동조합의 연간 총 매출은 300억 원이 넘는다.¹⁵⁾ 1966년 장일순이 가톨릭교인 35명과 함께 강원도 최초의 협동조합인 원주신용협동조합을 창립한 이래 원주소비자협동조합(현 원주한살림생협)을 비롯하여 의료생협, 노인협동조합, 공동육아협동조합 소꿉마당, 참꽃어린이교육협동조합, 문화소비자협동조합, 상지대생활협동조합, 갈가리신용협동조합, 생태건축협동조합 노나메기, 원주가농영농조합법인 등 20여개의 협동조합이 생겨났고, 이들이 모여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12) 알렉산더 F. 레이들로, 염찬희 역, 『21세기의 협동조합: 레이들로 보고서』(서울: 알마, 2015), 31-33.

13) 신성식·차형석, 『당신의 쇼핑이 세상을 바꾼다: 사람을 살리는 협동조합기업의 힘』(서울: 알마, 2013), 15.

14) 앤드류 매클라우드, 홍병룡 역, 『협동조합, 성경의 눈으로 보다』(서울: 아바서원, 2013), 148-151.

15) “서민금융 신흥부터 노인생협까지 ... ‘협동조합의 도시’ 원주”, 『경향신문』(2013년 1월 2일).

(강원도 1호 사회적 협동조합)를 만들었다.

2. 협동조합의 유형

우리나라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르면 금융과 보험업을 제외한 상품의 생산과 유통, 농업, 마케팅, 신용, 운송, 은행, 건축, 어업, 산림, 주택 및 의료, 교통 등 필요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그리고 조합원이 5명 이상이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에는 협동조합의 유형이 지금보다 훨씬 더 다양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좀 단순하기는 하지만 협동조합의 유형을 국가별로 구분할 수 있다. 영국의 노동자들은 소비자 주권 차원에서 보다 좋은 물건을 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소비자협동조합을 만들었다. 프랑스 사람들은 고용불안과 노동소외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자협동조합을 만들었다. 독일에서는 고리채에 시달리는 농민들을 위해 금융협동조합이 생겨났고, 덴마크에서는 농민들의 소득보장을 위해 농업협동조합모형을 발전시켰다. 그리고 이탈리아인들은 조합원의 이익을 넘어 사회적 부조와 연대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탄생시켰다.¹⁶⁾

우리나라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 협동조합의 유형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고 있다.

첫째, 소비자협동조합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활성화된 유형으로서 물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곧 조합원이며 주인인 협동조합이다. 친환경 농산물을 판매하는 생활협동조합을 비롯하여 대안학교나 공동육아협동조합도 이 유형에 속한다.

둘째, 생산자(사업자)협동조합은 각 영역의 생산자들이나 사업자들이

16) 스테파노 자마니·베라 자마니, 송성호 역, 『협동조합으로 기업하라』(서울: 북돋음, 2014), 47-53.

윤리적 생산, 공동구매나 공동마케팅을 통해 사업성을 성취한다. 이 유형은 재래시장이거나 각종 사업의 체인화에 적합한 유형으로 알려져 있다.

셋째, 직원(노동자)협동조합으로서 일반기업과 달리 노동이 자본을 고용하는 협동조합 유형이다.

넷째, 혼합형 협동조합으로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협동조합이라 할 수 있는 ‘한살림’¹⁷⁾이나 ‘아이쿱 생협’(자연드림)에서¹⁸⁾ 보듯이 소비자만 아니라 농민 생산자가 함께 구성하는 협동조합을 가리킨다. 최근 한국교회에서 활발히 논의되는 사회적 협동조합도 이러한 형태에 속한다.¹⁹⁾ 현재의 협동조합이 장차 일본의 ‘종합농협’처럼 혼합형 협동조합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²⁰⁾

III. 우리나라 기독교 협동조합의 역사

1. 일제 강점기 기독교 협동조합운동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부터 촌락단위의 공동노동체인 두레가 있었고, 조선시대에는 계와 같은 신용협동 조직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현대적 의미의 협동조합운동이 등장한 것은 일제 강점기로 볼 수 있다. 1920년 최초로 ‘목포 소비조합’이 등장했으며, 1932년 즈음에는 총 300여 개의

17) 한살림은 1988년 시작된 전국 조직의 협동조합으로서 2011년 말 현재 153개 매장에 30만 세대가 조합원으로 가입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협동조합이다.

18) 1997년 수도권외의 5개 생협(부평생협, 부천생협, 안산생협, 수원생협, 별내생협)과 대전의 한밭생협이 모여 탄생했다. 농민과 가공생산자가 함께 협동조합 복합체를 이룬다. 2012년 현재 조합원 수 17만 명, 매장 수 130여개, 연매출 규모 3,450억 원 정도다.

19) ‘사회적 협동조합’이란 지역주민의 권익증진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의 확대, 공익사업 등 비영리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을 가리킨다.

20) 일본의 종합농협에서는 농자재의 공급, 농산물의 판매, 보험 대행, 소비재의 공급, 지역에 따른 의료서비스와 건강관리, 영농지도, 지역사회 문화활동센터 역할 등 넓은 범위의 경제·사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참고: 알렉산더 F. 레이들로, 『21세기 협동조합』, 199.

협동조합이 활동했다고 한다.²¹⁾

한국교회는 선교초기부터 협동조합운동의 신앙적 의의와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당시 전체인구의 85% 이상이 농촌에 거주하는 상황에서 한국교회는 협동조합운동이야말로 피폐한 농촌사회를 재건하고, 농민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며, 궁극적으로 기독교 복음을 확장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특히 YMCA의 협동조합운동은 주목할 만하다. 당시 YMCA 이론가였던 홍병선은 마음과 물질을 합하여 일하는 것, 곧 '자본, 조직, 협력'에 기초한 협동조합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²²⁾ YMCA는 대지주 체제 아래에서는 불가능한 생산협동조합 대신에 신용협동조합이나 소비협동조합에 관심을 보였다. 1929년을 기준으로 YMCA가 주축이 된 협동조합이 전국 49개의 협동조합에 조합원 숫자가 1,692명이었는데, 1932년에 이르면 65개의 협동조합으로 늘어나게 된다.²³⁾

1928년 국제선교협의회(예루살렘대회)에 대표단을 파견한 것을 계기로 한국교회는 교단차원에서 협동조합운동에 관심을 갖게 된다. 감리교회는 1928년 농촌사업위원회와 농촌사업부를 설치하고, 장로교는 1929년 농촌부를 각각 설립하면서 협동조합운동에 적극 나서게 된다. 장로교 총회 농촌부는 공동구매와 공동판매를 하는 '중앙신용협동조합'을 설립하고, 각 노회로 확산시켜 나갔다. 그리고 초교파적 성격을 지닌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도 농촌선교의 전략으로 협동조합운동에 나섰다.²⁴⁾ 민족자본의 육성과 경제적 자립에 관심했던 고당 조만식은 1929년 평양소비조합을 시작으로 웅기공영조합, 위화소비조합, 고성소비조합, 인천조선물산소비

21) 김형미, "한국 생활협동조합운동의 기원: 식민지 시대의 소비조합운동을 찾아서", 김형미 외, 『한국 생활협동조합운동의 기원과 전개』(파주: 푸른나무, 2012), 25-27.

22) 김권정, "1920-30년대 한국기독교의 농촌협동조합운동", 『숭실사학』21(2008), 260.

23) 김권정, "1920-30년대 한국기독교의 농촌협동조합운동", 275.

24) 김권정, "1920-30년대 한국기독교의 농촌협동조합운동", 273-274.

조합, 순천소비조합, 당진소비조합 등을 만들었고, 황해도와 평안도의 소비조합 연합체인 ‘관서협동조합경리사’를 창립하기도 했다.²⁵⁾

하지만 일본 제국주의는 농촌 사회에서 사회주의 세력이 확산하는 것을 막고, 민족주의 운동을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1932년부터 ‘농촌진흥운동’을 추진하면서 기독교 농촌협동조합운동을 탄압하기 시작했다. 비슷한 시기 세계경제공황으로 인해 농촌협동조합운동을 주도하던 YMCA 농업전문가들이 본국으로 귀국하게 되면서 기독교 농촌협동조합운동이 위축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국교회 내부적으로 신학적 보수주의자들이 협동조합운동에 대해 비판하기 시작했고, 1937년 중일전쟁 직후에는 장로교와 감리교의 교단 농촌부가 폐지되면서 자동적으로 협동조합운동도 크게 위축되었다.²⁶⁾

2. 해방 후 기독교 협동조합운동

장로교 협동조합운동의 이론가였던 유재기는 일본 유학중 가가와 도요히코를 통해 농촌협동조합운동에 대해서 배웠으며, 협동조합운동을 신앙과 조화시킬 수 있는 기독교 사회운동으로 생각했다. “협동조합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제생활에서 사회에 실천할 수 있는 절호한 유기적 사회적 조직이다.”²⁷⁾ 그에게 협동조합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경제적 자립을 결합하여 이상적인 공동체를 만드는 중요 전략이었다. 이는 협동조합이 상호부조의 자급자활의 단체요, 민주주의적 질서로 운영되는 조직이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으면서도 자기의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사랑의 조직

25) 김형미, “홍성지역 생협운동의 전통: 교육과 협동조합을 통한 이상촌 건설의 이상과 그 계승”, 김형미 외, 『한국 생활협동조합운동의 기원과 전개』, 119-123.

26) 김권정, “1920-30년대 한국기독교의 농촌협동조합운동”, 276-279.

27) 김권정, “해방후 유재기의 국가건설운동과 농촌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71(2012), 270 재인용.

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유재기는 귀국 후 숭실전문학교와 평양신학교에서 배민수와 최문식을 만나 기독교농촌연구회를 결성하여 ‘1교회 1조합주의’를 주창하기에 이르렀다.²⁸⁾

한편 가톨릭에서는 6.25 전쟁 중 피난지였던 부산의 메리놀병원에서 구호사업과 전쟁 미방인을 위해 복지사업을 하던 메리 가브리엘라 수녀가 중심이 되어 1960년 5월에 ‘성가신용협동조합’을 창립하였다. 이어서 서울에서는 장대의 신부가 중심이 되어 ‘가톨릭중앙신협’을 창립하고, ‘협동조합연구원’을 설립하였다.²⁹⁾

3. 1960년대 이후 기독교 협동조합운동

1968년 복음병원의 장기려는 채규철, 김서민 등과 함께 덴마크의 협동조합과 대공황기 미국의 의료보험제도인 청십자(Blue Cross)를 모델로 삼아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의료보험조합인 ‘청십자의료보험조합’을 설립하였다.³⁰⁾ 당시 담배 한 갑 가격도 안 되는 월 회비 60원을 내면(당시 담배 1갑 100원, 짜장면 값 50원) 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었고, 치료비의 20%만 부담하는 조건이었다. 1974년에 이미 1만 5천여 명의 회원이 가입했으며, 얼마 후에는 20만 명의 거대한 조직으로 발전하여 가난한 서민들의 건강 증진과 교회의 사회적 책임 수행에 크게 기여했다.

홍성 풀무학교의 협동조합운동도 주목할 가치가 있다. 남강 이승훈의 친척이었던 이찬갑은 일본에 머무는 동안 협동조합운동을 배우게 되었고, 귀국 후 1931년에 오산소비조합의 임원이 되었다. 월남한 이찬갑이 감리교목사였던 주옥로와 함께 홍성군 홍동면에 1958년 풀무고등공민학교를

28) 김권정, “해방후 유재기의 국가건설운동과 농촌운동”, 278.

29) 한경호, “한국기독교 협동조합운동의 역사와 성격”, 『기독교사상』(2013/7), 25.

30) 지강유철, 『장기려 그 사람』(서울: 홍성사, 2007), 350-353.

설립하고, 이듬해 소비조합의 일종인 구매부를 설립했고, 1969년에는 풀무신용협동조합을 설립했다. 풀무소비조합은 1980년 지역주민과 함께 소비조합으로 재 창립했고, 1983년 12월에는 생산자 중심의 소비조합으로 재출발하게 되어 19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었다. 현재 흥동농협, 풀무생협, 풀무신협, 풀무학교생협은 흥동면 지역공동체운동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³¹⁾

한편, 기독교대학 가운데 하나인 서울여대는 1963년부터 협동조합을 필수과목으로 학생들에게 강의했으며, 1964년에는 조합원 1인당 100원씩을 출자하여 400여명의 교수와 학생이 참여하여 협동조합을 창립했다.

1970년대 도시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생겨난 도시산업선교회(영등포산업선교회)의 주요 활동 가운데 하나도 협동조합운동이었다. 영등포산업선교회는 노동운동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일찍부터 협동조합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고, 1968년에는 이농자를 위한 주택조합을 만들었고, 1969년에는 50명의 조합원이 모여 신용협동조합을 창립하기도 했다. 이 신협은 1972년 영등포산업개발협동조합이란 이름으로 정부로부터 신협1호 인가를 받았다. 1976년에는 노동자 120여명이 각각 1만원씩 출자하여 생활필수품을 공동구매하는 공공구매협동조합을 만들었다. 그해 말 조합원수는 배로 늘었고, 총 거래 금액도 6백만 원을 넘어섰다. 1980년 조합원 숫자가 450여 명으로 성장해 갔지만 당시 유신정부의 탄압과 감시로 1982년 자진 해산하게 되었다. 이후 2002년에는 서울 대림동에 서울의료생협을 태동시켰고, 2004년 서로살림생활협동조합을 설립했다.³²⁾

31) 김형미, “흥동지역 생협운동의 전통: 교육과 협동조합을 통한 이상촌 건설의 이상과 그 계승”, 117-135.

32) 영등포산업선교회, 『영등포산업선교회 협동운동 40년사』(2009), 22; 손은정, “우리나라 협동조합운동의 실태와 한계, 그리고 과제: 영등포산업선교회를 중심으로”, 『기독교사상』(2013/7), 50-71; 정원각, “노동운동과 소비자 협동조합운동”, 김형미 외, 『한국생활협동조합운동의 기원과 전개』(서울: 푸른나무, 2012), 159-171.

한국교회의 주요 교단 안에도 생활협동조합운동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³³⁾ 그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주민생협’(기장)은 빈민선교에 관심을 기울였던 성남 주민교회 교인들이 주축이 되어 시작되었다. 주민교회는 1970년대에 의류생협, 1979년에는 주민신협, 1989년에는 소비자협동조합, 1993년에는 생활협동조합을 각각 창립했다.

‘호저소비자협동조합’은 원주 호저교회(예장 통합)가 중심이 되어 1989년 창립조합원 50여명을 중심으로 설립되었다. 초창기에는 수원 고등교회와 농산물을 직거래하다가 점차 기름공장과 미장원으로 사업을 확장하게 된다. 2000년에는 생협의 업무구역을 호저면 일대에서 원주 및 강원도까지 확대하면서 이름도 ‘원주생협’으로 전환했다.³⁴⁾

「교방동네 사람들」의 실제인물인 허병섭 목사는 1970년 수도권특수지역선교위원회 활동을 통해 일찍부터 빈민선교운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는 1976년 가난한 지역주민들과 함께 서울 하월곡동 산동네에 동월교회를 개척하고, 1988년에는 일용직 노동자 협동조합인 ‘건축일꾼조합’, 그리고 1990년에는 ‘월산동 건축일꾼 두레’를 결성하기도 했다.³⁵⁾

‘주민생협’이나 ‘원주생협’, 그리고 ‘건축일꾼조합’이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시작되고 발전해 간 것이라면, ‘예장생협’과 ‘농도생협’은 교단적 차원에서 만들어진 협동조합이다. 예장생협과 농도생협은 둘 다 비슷한 시기에 농촌선교와 농민운동에 관심하는 농촌목회자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예장생협은 1992년 예장(통합) 농민목회자협의회가 ‘우리농촌살리기 기독교협의회’를 결성하고, 1994년 우루구아이 라운드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 졌다. 하지만 핵심 인물이었던 김재일 목사의 죽음으로 문을 닫았

33) 조용훈, “기독교 도시빈민공동체운동의 현황과 미래적 과제에 대한 연구”, 『신학사상』 157(2012), 117-151.

34) 한경호, “호저교회와 원주생활협동조합”,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사회봉사부 세미나자료집, 『교회와 협동조합』(2013), 189-203.

35) 조용훈, “기독교 도시빈민공동체운동의 현황과 미래적 과제에 대한 연구”, 125.

다가 2015년 9월 ‘은생명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 새로 만들어졌다. 한편, 농도생협은 감리교 농촌목회자들로 구성된 된 농촌목회선교회가 주축이 되어 1997년 설립되었다. 지금은 조합원수 1천여 명, 출자액 7천여 만 원의 생협으로 발전했다. 예장생협이나 농도생협 외에도 교단이나 기독교 단체가 주축이 되어 설립된 협동조합이 적지 않다.³⁶⁾

IV. 협동조합운동과 기독교적 가치 사이의 상관성

1. 협동조합의 원칙에 나타난 핵심 가치들

1895년 영국 런던에서 창립된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은 1937년 파리 총회에서 협동조합의 원칙을 제정했다.(1966년 개정, 1995년 확정) “협동조합은 자조, 자기 책임, 민주, 평등, 형평성, 그리고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며, 조합원은 협동조합 선구자들의 전통에 따라 정직, 공개, 사회적 책임, 타인에 대한 배려 등의 윤리적 가치를 신조로 한다.”³⁷⁾ 여기서 자조란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한다는 뜻이며, 자기 책임이란 조합원의 책임감을, 민주와 평등이란 보편적 가치를, 형평성이란 조합원 간의 분배와 보상의 공정성을, 연대란 조합원 간의 연대와 상호 책임 및 국제적 연대를 가리킨다. 한편, 조합원들의 윤리적 덕목으로 정직과 타인 배려, 그리고 사업체의 덕목으로 투명 경영과 사회 책임을 강조한다.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전 이사인 왓킨스(W. P. Watkins)가 말한대로 “협동조합과 다른 경제조직의 진정한 차이는 협동조합은 사업적 테크닉이 윤리적 사고에 종속된다는 데 있다.”³⁸⁾

36) 자세한 사례는 다음을 참고하라: 한경호, “한국기독교 협동조합운동의 역사와 성격”, 『기독교사상』(2013/7), 22-40.

37) 김성오 외, 『우리 협동조합 만들자』, 53 재인용.

38) 알렉산더 F. 레이들로, 『21세기의 협동조합: 레이들로 보고서』, 113 재인용.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은 협동조합의 가치를 실행하는 지침으로 일곱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제1원칙은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로써 가입과 탈퇴의 자유다. 제2원칙은 1인 1표의 원칙으로 모든 조합원이 출자액과 상관없이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에 동등한 권리를 행사한다. 제3원칙은 모든 조합원이 공정하게 자본조달과 잉여금 배당에 참여한다. 제4원칙은 정부나 기업의 지배와 간섭으로부터 자유롭고, 조합원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제5원칙은 조합원과 임원, 직원들에게 적절한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며, 일반대중에게 협동조합의 본질과 기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다. 제6원칙은 협동조합 간의 협동과 네트워킹을 통해 경제적·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한다. 제7원칙은 조합원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한다.

이러한 원칙이 주로 소비자협동조합과 관련되어 있다는 약점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모리스 콜롬뱅(M. Colombain)은 다음의 다섯 가지 원칙을 새로 제안했다:³⁹⁾ 첫째, 연대와 상호 관여의 원칙. 둘째, 평등과 민주주의의 규칙. 셋째,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운영. 넷째, 공평·공정·비례의 원칙. 다섯째, (문화라는 더 넓은 의미로 해석한) 협동조합 교육.

위에서 알 수 있듯이, 협동조합은 사업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일반기업과 같지만, 추구하는 가치와 운영하는 원칙에서 일반기업과 뚜렷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즉 협동조합은 소수의 주주가 아닌 다수 조합원의 공동 소유라는 점, 기업행위의 목적이 단순한 영리추구만 아니라 사회적 목적(고용과 서비스에서 사회적 약자의 배려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채투자 등)도 지닌다는 점, 잉여(이익)를 주주가 아닌 조합원 모두에게 배분하며 이익을 나누는 대신 조합비를 내리거나 물품 가격을 내린다는 점, 생산수단의 소유자와 소비자가 동일인이라는 점에서 일반기업과 구

39) 알렉산더 F. 레이들로, 『21세기의 협동조합: 레이들로 보고서』, 98.

별된다.

2. 협동조합운동의 목표: 생명과 사람 중심의 공동체

인적 결사체로서 협동조합은 단지 조합원의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는 데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생명과 사람 중심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는 데 궁극적 목적이 있다.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 아래 우리사회는 협동조합운동이 태동하게 된 초기 자본주의 상황만큼이나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다. 인간 생명과 자연생태계, 그리고 사회공동체가 위협을 당하고 있다. 이런 사회현실에 맞서 협동조합운동은 지역공동체의 재건은 물론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사는 생명중심의 공동체를 지향한다.

일본 협동조합운동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가가와 도요히코가 제시한 ‘한 사람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은 한 사람을 위해’라는 구호에서 알 수 있듯이, 협동조합운동은 조합원 간의 상호 신뢰와 협동을 토대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지향한다. 그리고 과거 협동조합운동의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협동조합운동은 지역의 소비자나 생산자,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

공동체운동으로서 협동조합운동은 물질이나 돈 대신에 사람을 중심에 둔다. 비록 협동조합이 기업의 형태를 지니더라도 이윤추구를 최종의 목적으로 삼지는 않는다. 그리고 협동조합은 인적 결사체로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중시한다. 샤를 지드(Charles Gide)가 강조했듯이, 협동조합운동가들은 ‘사업체를 통해 공통의 경제적·사회적·교육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란 사실을 망각해선 안 된다.⁴⁰⁾ 최근 활발해진 유기농산물을 중심으로 한 생산과 소비의 협동조합운동에서는 사람(소비자와 생산자) 사이만 아니라 인간 생명과 자연생태계의 생명과의 관계가

40) 알렉산더 F. 레이들로, 『21세기의 협동조합: 레이들로 보고서』, 94.

지 고려하고 있다. 말하자면 협동조합운동은 자본가와 노동자, 생산자와 소비자, 부자와 빈자, 그리고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사는 것을 지향하는 생명공동체운동이다.

성서에는 생명 중심의 공동체에 대한 비전이 잘 나타나 있다. 구약성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돌봄을 통해 ‘가난한 자가 없는 사회’(신 15:5)를 추구한다. 창조신학과 안식일(안식년과 희년), 그리고 땅에 대한 성서적 태도는 인간과 자연의 공생을 추구한다. 예언자 이사야의 비전은 인간과 자연생태계가 함께 평화를 누리는 우주적 생명공동체였다.(사 11:6-9) 예수께서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정의, 평화에 기초한 생명공동체였다. 초기 예루살렘 공동체는 이러한 공동체의 꿈을 유무상 통의 삶 속에서 구현했다.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행 4:32) 그 결과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행 4:34) 됨으로써 언약공동체가 지녔던 오랜 꿈(신 15:5)이 실현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런 신앙적 전통에 기초해서 한국교회 협동조합운동가들도 한결같이 협동조합운동이야말로 신앙을 생활화 하는 길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구현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했다. 한 예로 일제 강점기 유재기와 배민수의 주도 아래 시작된 ‘예수촌 운동’은 공동체적 이상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수단으로 협동조합을 염두에 두었다. 그들에게 협동조합은 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고, 신앙을 현실세계에 생활화할 수 있는 ‘유기적 조직체’요 ‘천국운동의 유일한 사랑의 시설’이었다.⁴¹⁾

물론 앤드류 매클랜드의 지적처럼, 협동조합운동은 나눔, 참여, 책임, 가난의 극복과 같은 기독교의 공동체적 가치를 구현한다. 하지만 초기

41) 방기중, 『배민수의 농촌운동과 기독교사상』(서울: 연세대출판부, 1999), 176.

기독교 신자들이 가졌던 공동체적 삶에 비하면 협동조합운동이 보여주는 공동체적 삶이란 여전히 ‘영성한 모조품’에 불과하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운동은 새로운 공동체적 세계를 향한 ‘걸음마’로서 그 나름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말하자면 협동조합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자유와 평등과 정의의 새 질서를 위한 ‘시험장’이자 ‘건축용 블록들’과 같다.⁴²⁾

3. 협동조합운동의 조직 원리: 협동과 연대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CO-Ops(co-operate, 함께 일하기)라고 부르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협동조합의 핵심 가치는 협동과 연대다. 협동조합은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상호 협동과 연대를 통해 경제적 자립과 삶의 질 개선을 추구한다. 협동이란 가치는, 에드가 파넬의 주장대로, 인간사회의 조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개인과 집단의 요구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수단이다. 달리 표현하면, 협동이란 자기 결정권(self-help)을 유지하면서도 함께 일하는 것(mutual-help)이다. 따라서 협동의 반대는 ‘경쟁’이 아니라 ‘고립된 행동’으로 보아야 한다.⁴³⁾ 한편, 연대란 사회적 약자에 대해 이웃사랑의 계명을 확장시킨 것으로서 사회윤리의 토대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연대라는 가치에는 고통당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민과 돌봄, 그리고 나눔과 같은 공동체적 태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⁴⁴⁾

무한경쟁의 원리에 기초한 자유주의 시장경제와 달리 협동과 연대의 가치에 기초한 사회적 경제는 ‘호혜의 경제’를 추구한다. 가가와 도요히코의 표현을 따르자면, 사회적 경제의 한 형태로서 협동조합은 기독교적

42) 앤드류 매클라우드, 『협동조합, 성경의 눈으로 보다』, 181.

43) 에드가 파넬, 엄찬희 역, 『협동조합 그 아름다운 구상』(홍성균: 그물코, 2012), 16-17.

44) 최경석, “경제적 양극화의 극복을 위한 판단 기준의 설정: 연대성의 개념을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30(2014), 106-111.

형제애에 기초한 ‘우애의 경제’다.⁴⁵⁾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인 경쟁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낳는다. 하지만 경쟁에서 낙오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당연시한다. 이러한 약육방식과 적자생존의 삶의 방식은 자연의 법칙일 수는 있어도 사회의 법칙이어서는 안 된다. 인간은 동물 이상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원리는 경쟁보다는 협동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개미와 꿀벌, 새와 늑대 등 집단생활을 하는 동물들의 삶의 방식이 협동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가운데서도 악어와 악어새는 상생(공생)의 원리를 보여주며, 남아프리카의 미어캣 같은 동물은 공동체의 보호를 위해 자기희생을 감수하는 이타적인 행동까지 보여준다. 토지 공개념(지공주의)을 주창한 헨리 조지는 그의 책 『진보와 빈곤』(1879)에서 “우리는 협동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이다. 마치 두 발처럼, 두 손처럼, 두 눈꺼풀처럼, 위 아랫니 치열처럼”⁴⁶⁾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경제생활에서 협동이 가능하려면 상호신뢰와 소통이 있어야 한다. 상호신뢰란 내가 협력하면 상대방도 협력함으로써 모두에게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는 마음이다. 한편, 협동은 개방적이고 정직한 소통을 통해서 가능해진다. 협동조합운동이 경영진에게 정직과 투명 경영의 윤리원칙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

자본주의 경제생활이 ‘경쟁지향적’ 삶의 방식을 만들어 내는 반면에 기독교적 삶의 방식은 상호 신뢰와 협동에 기초한 ‘협동적’ 혹은 ‘공동체적’ 삶을 추구한다. 사도행전 예루살렘 공동체 구성원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이웃과 나누었고, 함께 떡을 떼면서 연대감을 보여주었다.(행

45) 가가와 도요히코, 홍순명 역, 『우애의 경제학』(홍성군: 그물코, 2009).

46) 손은정, “우리나라 협동조합운동의 실태와 한계, 그리고 과제”, 64 재인용.

2:42-47) 바울은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롬 15:1)하고, ‘짐을 서로 지는’(갈 6:2) 협동과 연대의 삶이야말로 기독교적 삶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행위가 ‘도덕적 시혜’ 차원에 머물지 않으려면 ‘연대성’의 관점이 요청된다. 구약성서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돌봄은 아웨와 이스라엘 사이의 ‘계약적 연대성’ 즉 계약적 의무(duty)에 속한 것이지 시혜(charity)가 아니었다.⁴⁷⁾

앤드류 매클라우드(Andrew McLaurie)는 협동조합운동이 추구하는 협동적 삶의 방식을 ‘성서적인 조직방식’이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열쇠라고 본다. 그러면서 그는 협동의 세 가지 측면, 즉 각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원을 자발적으로 나누는 일, 권력이 어느 개인의 손에 집중되지 않게 다 함께 결정하는 일, 그리고 개인의 책임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공동 규율을 집행하는 일이 신약성서의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구현되었다고 말한다.⁴⁸⁾

4. 협동조합의 운영 원리: 평등과 자율에 기초한 민주주의

협동조합이 사업성을 지닌 하나의 조직체이긴 하지만 일반기업과 다른 중요한 특징은 의사결정방법과 소통방식이다. 협동조합은 출자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조합원 1인당 1표의 의결권을 가지는 민주적 결사체다. 이 같은 협동조합의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은 평등과 자율적 책임이란 가치를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수단이다. 조합원들은 협동조합의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학습한다.

협동조합의 민주적 성격은 1인 1표의 원칙 외에도 자율적 책임이라는

47) 안계정, “한국사회의 경제적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에 대한 연구”, 『기독교사회윤리』29(2014), 310-311.

48) 앤드류 매클라우드, 『협동조합, 성경의 눈으로 보다』, 14-15.

원칙에도 나타난다. 조합원에게는 협동조합의 가입과 탈퇴의 자유가 보장되고, 조합원 사이의 차별을 배제하며,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중시한다. 조합원의 자율적 책임의 가치를 함양하기 위해 협동조합은 조합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지도력 훈련, 임원과 이사에 대한 특혜의 배제, 정보의 개방, 의사결정에 참여, 그리고 합의의 정신 등을 강조한다.⁴⁹⁾

이 같은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려면 조합원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협동조합의 규모가 커지면 조직의 효율성이 강조되며, 경영의 투명성과 공개성이 약해지고, 조합원 개인들의 관심과 참여가 줄어들면서 협동조합의 민주주의적 특성이 약화된다. 협동조합이 조합원의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진만 아니라 조합원의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공동체의 의사결정 방식에서 오늘날 협동조합과 유사한 운영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한 양식분배 문제를 놓고 헬라인 기독교인과 유대인 기독교인 사이에 분쟁이 생겨났을 때 교회는 일곱 집사를 택해서 그들에게 양식분배의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기로 결정했다(행 6:2-4) 앤드류 매클라우드는 이 이야기 가운데에서 오늘날 협동조합과 비슷한 민주적으로 선출된 이사회를 발견한다.⁵⁰⁾ 성서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의 후임을 새로 뽑는 일에서도 당시 교회 지도자 한 두 사람에게 의해서가 아니라 함께 모인 백 이십여 명의 구성원들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전해주고 있다.(행 1:14-26) 말하자면 공동체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 한 사람 혹은 소수의 사람에게 의해 결정되지 않고, 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49) 알렉산더 F. 레이들로, 『21세기의 협동조합』, 108-111.

50) 앤드류 매클라우드, 『협동조합, 성경의 눈으로 보다』, 35.

방식으로 결정되고 있다. 이 같은 결정 방식이야말로 협동조합이 추구하는 민주적 결정방식이다.

V. 나가는 말: 협동조합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실천과제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우리사회에 협동조합 붐이 일고 있다. 협동조합운동과 기독교 신앙 사이에는 이념적으로는 공유하는 가치가 많아서 한국교회도 적극적으로 관심하고 있다. 그런데 협동조합을 만들기는 쉬워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는 어렵다. 교회와 관련된 협동조합은 신앙적 목적만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목적도 달성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어 훨씬 더 어렵다. 협동조합의 이념 유지는 물론 파산하지 않도록 사업을 잘 하는 일이 쉽지 않다. 사업아이템을 정하고, 인력관리나 재정관리 등 해결해야 할 난제가 수도룩하다. 돈과 사람문제가 신앙보다 더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레이들로 보고서』는 그 동안 협동조합운동의 역사에 나타났던 어려움을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해주고 있다:⁵¹⁾ 첫째 단계에서 생기는 ‘신뢰의 위기’다. 협동조합의 성공에 대해 확신하는 사람이 소수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시민의 참여가 낮다. 둘째 단계에서 경영, 기술, 사업면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해 도산하게 되는 경영의 위기다. 셋째 단계에서, 협동조합의 목적, 일반기업과의 차이, 현실 경제제도와의 관계설정에 대한 의문 등과 관련해서 생겨나는 ‘사상의 위기’다.

이 같은 현실적 문제들을 염두에 두면서 앤드류 매클라우드르는 다음 다섯 가지의 실제적제안을 하고 있다:⁵²⁾ 첫째, 비전의 발견으로서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내용으로 한다. 지역사회가 무엇을 필요로 하며,

51) 알렉산더 F. 레이들로, 『21세기의 협동조합』, 25-27.

52) 앤드류 매클라우드, 『협동조합, 성경의 눈으로 보다』, 191-199.

어떤 공통의 요구가 있는가? 어떻게 이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 취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둘째, 조직 갖추기로서 의사 결정의 방식과 소통의 방식, 책임과 결정의 위임, 법적 형태와 인적 결사체 사이의 조화를 이루는 문제다. 셋째, 현실 점검으로서 재정적 자립가능성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지역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 사업상 경쟁상대, 자금수요 예측, 그리고 매장 위치와 임대료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넷째, 조합원과 관련된 문제로서 조합원의 숫자와 자금 규모, 조합원의 권리와 책임, 조합원의 기여도 산정 등이다. 다섯째, 씨뿌리기로서 전문 경영인, 시설과 장비, 그리고 회계와 관리 등의 문제 등이다.

이런 현실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운동에 한국교회가 적극적으로 관심하고 참여해야 할 이유는 여럿이다. 먼저, 신앙적인 면에서 볼 때 협동조합운동과 기독교 신앙 사이에 공유하는 가치가 많기 때문이다. 생명과 사람 중심의 더불어 사는 공동체는 협동조합운동의 목표이며, 협동과 연대는 협동조합운동의 조직 원리이며, 평등과 자율에 기초한 민주주의는 협동조합의 운영원리다. 협동조합운동은 이 땅에서 신앙을 생활화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수단 가운데 하나다. 한편, 역사적인 면에서 볼 때 한국교회는 선교초기부터 농촌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농촌공동체운동에 관심했는데 그 핵심에는 협동조합운동이 있었다. 사회운동 차원에서 볼 때 협동조합운동은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문제들을 극복하는 대안적 사회운동 가운데 하나다. 교회의 사회책임 혹은 교회의 공적 역할이란 면에서 협동조합운동은 교회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다.

한국교회가 협동조합운동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고, 교회의 사회책임을 더 잘 수행하려면 협동조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인을 위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고, 신학생들에게

는 새로운 사회목회 전략으로 교육과정이 요청된다. 교회는 지역사회의 필요에 따라 창의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을 모색해야 한다. 완성된 형태의 협동조합이란 존재할 수 없기에 협동조합운동은 항상 개방적이어야 한다.

참고문헌

- 김성오 외. 『우리 협동조합 만들자』. 고양: 겨울나무, 2013.
- 방기중. 『배민수의 농촌운동과 기독교사상』. 서울: 연세대출판부, 1999.
- 영등포산업선교회. 『영등포산업선교회 협동운동 40년사』, 2009.
- 신성식·차형석, 『당신의 쇼팽이 세상을 바꾼다: 사람을 살리는 협동조합기업의 힘』. 서울: 알마, 2013.
- 정태인·이수연. 『협동의 경제학』. 서울: 레디앙미디어, 2013.
- 지강유철. 『장기려 그 사람』. 서울: 홍성사, 2007.
- 도요히코 가가와, 홍순명 역. 『우애의 경제학』. 홍성군: 그물코, 2009.
- 레이들로, 알렉산더 프레이저, 염찬희 역. 『21세기의 협동조합: 레이들로 보고서』. 서울: 알마, 2015.
- 매클라우드 앤드류, 홍병룡 역. 『협동조합, 성경의 눈으로 보다』. 서울: 아바서원, 2013.
- 자마니 스테파노·자마니 베라, 송성호 역. 『협동조합으로 기업하라』. 서울: 북돋움, 2014.
- 파넬 에드가, 염찬희 역. 『협동조합 그 아름다운 구상』. 홍성군: 그물코, 2012.
- 홀리요크, 조지 제이콥, 정광민 역. 『로치데일 공정선구자 협동조합』. 홍성군: 그물코, 2013.
- 김권정. “1920-30년대 한국기독교의 농촌협동조합운동”. 『송실사학』21(2008), 255-287.
- _____. “해방후 유재기의 국가건설운동과 농촌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1(2012), 255-294.
- 김형미. “한국 생활협동조합운동의 기원: 식민지 시대의 소비조합운동을 찾아서”, 김형미 외. 『한국 생활협동조합운동의 기원과 전개』. 파주: 푸른나무, 2012, 14-56.
- _____. “홍성지역 생협운동의 전통: 교육과 협동조합을 통한 이상촌 건설의 이상과 그 계승”, 김형미 외. 『한국 생활협동조합운동의 기원과 전개』. 파주: 푸른

나무, 2012, 117-135.

손은정. “우리나라 협동조합운동의 실태와 한계, 그리고 과제: 영등포산업선교회를 중심으로”. 『기독교사상』(2013/7), 50-71.

안계정. “한국사회의 경제적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에 대한 연구”, 『기독교사회윤리』29(2014), 287-320.

정원각. “노동운동과 소비자 협동조합운동”. 김형미 외. 『한국 생활협동조합운동의 기원과 전개』. 파주: 푸른나무, 2012, 136-177.

정재영. “협동조합운동의 기독교적 가치와 선교적 가능성”, 『기독교사상』(2013/7), 42-49

조성돈, “교회의 생명공동체운동과 협동조합”, 예장총회사회봉사부, 『교단 생활협동조합 창립을 위한 공개세미나 자료집』(2015년 3월 5일), 53-65.

조용훈. “기독교 도시빈민공동체운동의 현황과 미래적 과제에 대한 연구”. 『신학사상』 157(2012), 117-151.

최경석. “경제적 양극화의 극복을 위한 판단 기준의 설정: 연대성의 개념을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30(2014), 99-126.

한경호. “한국기독교 협동조합운동의 역사와 성격”. 『기독교사상』(2013/7), 22-40.

- “호재교회와 원주생활협동조합”.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사회봉사부 세미나자료집. 『교회와 협동조합』(2013), 189-203.

“특집: 이제는 협동조합이다”. 『기독교사상』(2013/7), 10-92.

논문투고일: 2015년 10월 30일

심사개시일: 2015년 11월 11일

게재확정일: 2015년 12월 04일

• 국 문 초 록 •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우리 사회와 교회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협동조합운동은 자본주의 폐해를 극복하는 대안사회운동 가운데 하나로서 인정되고 있다. 신앙적 차원에서 볼 때 협동조합운동은 신앙을 생활화하고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수단 가운데 하나다. 과거 한국기독교의 역사를 보더라도 교회가 선교의 핵심전략과 사회목회 차원에서 협동조합운동에 적극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교회가 협동조합을 만들기 쉬워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어렵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려면 우선 협동조합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 협동조합의 개념과 유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한국기독교의 협동조합 운동에 대한 역사를 통해 한국교회가 선교적·사회적 차원에서 협동조합운동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가를 확인했다. 특히 협동조합운동과 기독교 신앙 사이에 공유하는 가치가 얼마나 많은지도 살펴보았다. 협동조합운동의 목표인 생명과 사람 중심의 공동체 형성, 조직방식인 협동과 연대, 그리고 운영방법인 민주적 결정은 일찍이 신약성서의 예루살렘 공동체의 꿈이요 삶의 방식이었다. 물론 협동조합운동은 예루살렘 공동체에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기독교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첫 걸음이며 시험장으로서 의미가 크다.

주제어: 협동조합, 교회, 가치, 공동체, 협동, 연대, 민주주의
